헤롯의 왕궁과 예수님의 빈들

(마14:6~12, 17~21)

6.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7.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8.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9.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10.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11.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12.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17.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이니이다
18.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19.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20.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21.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오천 명이나 되었더라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은 보통 오병이어 자체만을 따로 살펴보는 것이 그냥 관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자체가 참으로 여러 가지 포인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 측면에서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오늘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 마태의 의도에 맞추어서 한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병이어 기적의 참 뜻은 마태의 의도를 염두에 둘 때, 앞에 헤롯 안티파스 왕이 세례 요한을 참수형에 처하게 되는 그 헤롯 왕궁내의 상황을 같이 생각하지 않으면 마태의 의도를 우리가 놓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이야기를 같이 갖다 붙여서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앞부분 1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는 세례 요한의 죽음의 이야기가 핵심 주제가 아닙니다.
원래 이 부분은 - 앞에 11장에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혔을 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오신다고 했던 그 메시아가 당신이십니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지요? - 그 부분에 갖다 붙여야 시기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11장 지나고 12장 지나고 13장 지나서, 이 부분에서 지금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을 쓴 마태의 특별한 의도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의도는 인간적인 마태의 인격의 특수성에서 나오는 그러한 의도는 아닐 것이라고 믿어요, 성령님께서 마태를 주장하고 계시는 거니까.
그래서 마태를 통해 나타난 이 예수님의 행적의 배열의 의도, 이 성령님의 의도죠? 이 의도를 간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에, 그 의도를 염두에 두고 생각하면, 세례 요한의 죽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의 죽음은 헤롯 왕궁내의 상황을 묘사하기 위하여 등장하는 요소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그 이전에 있었던 건데 여기서 갖다 붙이는 이유는 바로 거기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빈들로 나가시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은 배로 가고 다른 사람들은 도보로 예수님께 찾아오는 그 장면, 갖다 붙인 이유가 뭔지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소설가 오스카 와일드가 쓴 희곡 중에 살로메라고 하는 희곡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헤롯 왕가의 이야기를 조금 상상력을 동원해서 약간의 변형을 가해서 흥미진진하게 만든 희곡이지요.
흥미진진하다는 말이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좀 끔찍하기도 합니다마는 이 헤롯가의 퇴폐성을 배경으로 살로메라고 하는 이 헤로디아의 딸을 부각을 시킵니다.
우선, 오스카 와일드가 이렇게 퇴폐적인 배경으로서 헤롯 왕가를 붙잡게 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도 헤롯 왕가가 역사상 굉장히 퇴폐적인 왕가였습니다, 그 족보가 콩가루 집안이에요.

지금 여기 나오는 분봉왕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를 말합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이에요.
헤롯 대왕의 아들로는 세 명이 거론되고 있는데,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안티파스와 헤롯 빌립 1세가 있고 그리고 헤롯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세 사람이 형제예요, 근데 본문에 나오는 헤롯왕의 아내 헤로디아는 본래 헤롯 아리스토블루스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헤롯 안티파스는 자기 조카하고 결혼을 한 거에요, 조카하고.
근데 조카하고 결혼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이 헤로디아는 헤롯 아리스토불르스의 딸 이 헤로디아는 자기의 다른 삼촌, 지금 헤롯 안티파스가 아니고 헤롯 빌립 1세 삼촌과 결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는 아랍 왕의 딸과 결혼을 하였는데, 이 사람이 로마를 방문하는 중에 로마에 살고 있었던 이 자기의 동생 빌립 1세의 집에 들르게 됩니다.
빌립1세의 집에 들렀을 때 헤로디아를 보게 되는데, 이 헤로디아는 자기에게 조카입니다.
조카이자 동생 빌립1세의 아내 제수씨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잠깐 머무는 동안에 이 헤로디아, 자기 조카이자 제수씨인 헤로디아하고 헤롯 왕 안티파스가 정분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1세로부터 헤로디아를 빼앗고, 동생으로부터 제수씨이자 또 자기의 다른 동생 헤롯 아리스토블루스의 딸인 헤로디아를 빼앗아 옵니다.
그리고 자기의 본래 부인이었던 아랍 왕의 딸은 보내버려요, 이혼을 해버립니다.

그때 이 조카이자 제수씨인 헤로디아가 데려온 딸이 살로메에요.
이 살로메는 자기 동생 빌립1세의 딸입니다.
아내인 헤로디아가 조카이면 살로메는 손녀가 되고, 또 자기 동생 빌립1세가 낳은 딸이라 그러면 조카가 됩니다.
아내인 헤로디아를 중심으로 보면 손녀가 되고 자기 동생 빌립1세를 보면 조카가 되는데, 그리고 자기에게도 조카이며 손녀인 살로메에게 오스카 와일드의 상상력 속에서는 끊임없이 욕정의 눈길을 주게 됩니다.
이 성경 속의 살로메의 나이가 16,17살로 추측이 되는데 오스카 와일드의 작품에서는 이 살로메가 왕궁 내의 이 분위기에 진저리를 치면서 지긋지긋해 합니다.

그리고 신선한 자극을 위해 나갔다가, 감옥 근처에서 세례 요한이 감옥 속에 갇혀서 자기 어머니 헤로디아와 자기 의붓아버지 헤롯 안티파스의 이 부정의 비윤리적인 모습을 계속 비난하며 독설을 퍼붓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세례 요한에게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이 정열적이고 겁 없이 자기 아버지에게 저항하는 남자에게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 앞에 가서 자기의 육체를 탐닉하기를 원하고 간청하며 유혹을 합니다.
자기의 붉은 입술에 입 맞추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오랫동안 살로메를 사랑하고 있던 한 청년이 자살을 해버려요.

자! 이러한 왕궁입니다, 헤롯의 왕궁이.
여기서 세례 요한이 죽는다는 것은, 마태가 볼 때에 제동장치가 사라진 것으로 봅니다.
제동장치가 뭡니까?
지금 이 마태복음이, 헤롯 왕가의 모습과 예수님의 빈들을 갖다 붙여서 보여주는 이유는 바로 앞에 13장에서 마지막에 어떻게 끝났죠? 옛것과 새것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옛것의 삶과 새것의 삶을 비교합니다.
그러면 옛것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옛것의 삶의 기본 출발점은 몸이 마음과 결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마음이 육체와 결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몸을 통하여 마음이 몸에 매여서 몸이 육체가 만나는 이 땅의 상황, 이 땅의 사람들, 이 땅의 사건들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때 헤롯 왕궁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마음이 육체에 묶인 상태에서 나오는 모든 소원을 다 이룰 수 있는 상태의 상징입니다.
마음이 몸에 묶여서 살고 있는 이 구조 내에, 이게 바로 옛것의 삶이에요.
이 구조에서 나타나는 소원이 있고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도 걸러지지 않고 제동장치가 없고 브레이크가 파열된 상태에서, 마음껏 소원대로, 욕망대로 했을 때에 나타나는 모습을 헤롯 왕궁의 모습으로 그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안티파스가 빌립1세의 집에 갔을 때, 그의 아내를 봅니다, 헤로디아에요.
헤로디아는 아리스토블루스, 자기 형제의 딸이자 자기 형제의 아내입니다.
그 헤로디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탈취합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욕망대로 행동을 합니다, 자기 본래 부인은 쫓아냅니다.

그리고 16, 17세 된 살로메를 헤로디아가 데려왔을 때, 그 살로메에 대한 욕정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살로메가 자기의 생일잔치 때에 육감적인 춤을 추면서 좌중을 사로잡자 거기에 홀딱 반해 가지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주겠다고 얘기하고, 그 경솔하고 경박하고 퇴폐적인 유흥의 감정 속에서 선지자 세례 요한의 목을 쳐버립니다.

이때 오스카 와일드의 상상력은 어디까지 동원 되느냐?
소반에 세례 요한의 목을 갖고 오잖아요?
이때 살로메가 도저히 자기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세례 요한을 죽여서까지 라도 자기 것으로 소유하려는 그 욕망을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합니까?
소반에 담아온 세례 요한의 목을, 머리카락을 잡고 들어서 그 피가 뚝뚝 떨어지는 세례 요한의 입에다가 입을 맞추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본래 갖고 싶어 했던 그 세례 요한을 가졌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모습에 진저리 치면서 헤롯왕이 그 살로메를 또한 죽여 버립니다.

여러분, 뭘 마태가 얘기하는 걸까요?
세례 요한을 통해 제동장치가 끊어져버린 상태에서 몸과 마음이 결합되어있는 구조에서 나타나는 욕망을 따라 사는 것, 그 연합되어진 구조 안에서 생기는 소원을 따라 사는 삶이 바로 이 헤롯 왕가내의 삶으로 향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이 뭡니까?
우리의 소원은 우리의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 땅에서의 삶이 그려지는 것, 이게 바로.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됩니다.
'아! 나는 참 헤롯왕과는 비교가 안 되는 소박한 꿈을 갖고 있고 건전한 꿈을 갖고 있다'
그 건전하고 소박한 꿈이 마음이 육체에 연합되어 있는 상태의 삶이라고 하면은 헤롯 왕궁으로 향하고 있는 도상에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쪽으로 가는 거예요.
소박한 꿈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소박한 꿈에 만족하게 머물러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천만에 말씀입니다.

지금 형편이 너무 어렵고 내가 해봐도 별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사람인 걸 잘 경험적으로 알고 있을 때 길들여져 가지고 하는 얘기가, 소박한 꿈이에요.
그러나 일단 그 소박한 꿈이 꾸어져 이루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또 발전합니다.
그 상태에서 소박한 꿈은 또 다른 거예요.
그 소박한 꿈이 제2의 꿈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상태에서의 소박한 건 또 다른 거예요.
국회의원 된 사람이 대통령을 꿈꾸는 거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내가 대통령 꿈꾸는 건 이상하지마는.
소박한 꿈이라는 것 단계가 있는 거지요.
왕궁을 향해 가는 거예요, 헤롯 왕궁의 이 콩가루 집안을 향해.
어쩔 수 없습니다, 몸과 마음이 결합되어 있는 구조 안에서 나타나는 모든 소원과 모든 꿈은 아무리 건전해 보여도, 아프리카에 가서 난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일지라도 이 구조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내 명예를 위한 것이고, 내 보람을 위한 것이 되어버리고 결국은 헤롯 왕궁 내로 진입하는 길의 노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빈들의 삶은 뭐에요?
빈들의 삶, 빈들이라는 것은 육체와 마음이 결합되어있는 상태, 마음이 육체가 접하는 상황에 종속되고 거기에 반응하게 되는 상태, 이 구조로서 빈들에 나갔을 때 이 빈들은 광야를 말합니다.
이 광야로 나갔을 때, 그 구조 안에서 일어나는 욕망과 소원 중에 이룰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땅이 빈들입니다.
왕궁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옛것의 삶의 구조에서 나타나는 모든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곳이 왕궁이에요, 권력도 있고 물질도 있고 다 있으니까.
그러나 빈들은 그 구조에서 나타나는 최소한의 필요도 채워줄 수가 없는 곳이 빈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불가능한 곳, 가장 기본적인 필요도 채워줄 수 없는 곳이 빈들이고 광야입니다.

이 빈들에 나가서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이신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새것의 삶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거 뭐지요, 여러분?

먼저, 본문에 보면은 13절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보세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빈들에 처해 있을 때라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와 닿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거기에 긍휼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마음과 육체가 결합된 상태에서, 자기 그 구조에서 나오는 소원과 욕망을 따라서 이 세상의 삶을 끌어당기며 살아가는, 정말 과도한 열정을 가지고 이 세상 것을 끌어 모으려고 살고 있습니다.
이때 독사의 자식이 나옵니다.

그런데 빈들에 처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소원도 있을 수 없고 꿈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빈들에 있는 한.
이때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새것의 삶은 빈들에서, 이 세상에 대하여 어떠한 능력도 발휘할 수 없고, 어떠한 소질도 발휘할 수 없고, 어떤 꿈도 소원도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때 오로지 내게로 다가와 나에게 다~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위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은행에 저축해둔 내 돈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내 여유로 사는 것 아니에요, 내 학벌로 사는 것 아니고, 인맥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긍휼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이게 바로 새것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빈들에서는 하나님의 긍휼이 어떻게 임하느냐?
긍휼함 안에서 주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오직 주어지는 대로 받고 사는 것이에요.
첫 번째가 빈들의 삶은 긍휼에 힘입어 삽니다.
그 긍휼 속에서 주어지는 대로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 위에서, 육체를 통하여 육체를 움직여가면서 육체로 사람을 만나고, 이 육체로 사건을 일으키고 육체로 활동을 하면서, 내가 무엇을 얻겠다고 사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긍휼이 여겨서 주시는 대로 받고 사는 것이에요.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는 마태의 포인트가 여기 있다는 것이에요.
빈들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수로 제자들이 먹을 것을 줍니까?
내가 너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빈들에는 세 번째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이들에게도 왕궁이 있습니다.
헤롯 왕궁과 같은 왕궁이 있어요.
풍요로움이 있고, 감격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왕궁이 있습니다.
그 왕궁이 어디에요? 하늘이에요 하늘.
이 빈들인 이 땅에서 결코 왕궁을 이루려 하지 않습니다, 이 땅 위에서 왕궁에 거하는 왕과 같은 삶,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소원대로 육체를 따라서 행동하며 성취하며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빈들인 세상을 떠나서, 주님께서도 그랬잖아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 하셨다'
그 하늘을 우러러 보며 마음이 그 곳으로 가버립니다.

여러분! 마음은 육체가 있는 곳에 머물러 있지를 않아요.
주님께서 말씀 하십니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이 스위스 은행에 있으면 내 마음이 거기 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애인이 내 보물일 때 애인이 뉴욕 가 있으면 내 마음도 뉴욕 가 있고, 사랑하는 내 외아들이 내 사랑하는 외딸이 영국 런던에 가 있으면 내 마음도 런던 가 있고,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단지 몸을 매개로 해서 인연을 맺은 자들을 따라 다니는 거지요.
그러니까 몸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마는, 공간적으로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머무는 건 아니에요.
육체와 결합은 되어 있지만 마음은 딴 곳으로 갈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빈들에 산다는 것은, 이 세상을 빈들로 여기고 산다는 것이지요.
이 세상이 빈들일 때, 육체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을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먹고 살면서 내 마음은 어디에 가있는 겁니까?
하늘나라 왕궁에 가있는 것이에요, 하늘나라 왕궁에.
그래서 이 빈들의 삶을 이루어 주시는 일이 뭡니까?
바로 주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이 세상에 대해 죽은 자가 되는 것은, 빈들에 처해있는 상태를 자처하는 거예요, 자처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십자가에 매어 죽었을 때, 예수님의 빈들이 펼쳐지면서 예수님의 긍휼이 와 닿고,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바를 주실 것입니다.
그 주시는 것은, 오병이어의 떡과 물고기뿐만이 아니라 사람관계도 주실 것이고, 일도 주실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이 일을 주시는지를 알 수가 있느냐?
내 마음이 세상에 대해 빈들일 때, 내 마음이 세상에 대해 빈들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광야니까 거칠고 메마른 사막 같은 마음으로 살라는 얘깁니까?
아니에요, 세상이 빈들일 때 하늘나라가 왕궁으로 다가오고 내 마음이 하늘나라 왕궁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는 이유가 없는 기쁨과 평강과 행복과 감사, 그리고 무조건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지난 동서남북에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군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 증상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세상일이 가벼워져요, 아무것도 아닌 게 되요.
그러니까 어저께 말한 대로, 새것에 정통하게 되고 옛것인 세상의 일을 볼 때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처음이자 마지막인 특징은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게 되는 거지요, 이게 바로 세상을 빈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빈들로 살아간다고 삭막한 게 아니에요.
정말 참되게 기름지고, 참되게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은 삶이라 이겁니다.
왜? 마음이 하늘왕궁으로 들어가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이 세상에 대해 죽은 자로 자처하는 것, 이게 바로 빈들의 삶이고 그러한 빈들에 처한 사람의 마음이 될 때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고, 하나님의 긍휼 속에서 내게 주어지는 대로 살아가면 되요.
이 세상에서의 삶은 오병이어 -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빈약한 음식입니다. - 그런 것으로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그
리고 그 오병이어 같은 형태로만 주어지는 것 아닐 수도 있지요.
예를 들어 하나님이 돈을 많이 주셨다, 그래도 빈들입니다.
내 마음과 내 육체가 결합된 구조 안에서 일어나는 욕망을 따라, 아무거나 눈에 보이는 대로 하고 싶다고 내 돈이라고 막 사는 것, 이거 헤롯 왕궁으로 가는 길이에요.
콩가루 집안으로, 퇴폐적이고 정말 추악한 데카당스의 상태로 가는 거예요, 데카당스의 상태로.

아무리 내가 여유가 있어도 나는 빈들이에요.
빈들이 뭡니까? 그 여유로부터 내가 사고 싶은 것을 사면 안돼요, 그건 헤롯왕이 되는 거예요, 헤롯 왕궁의 삶이 되는 거지요.
먼저 돈을, 내게 있는 돈을 써서 내 마음이 만족하기 전에 주님의 십자가에서 꼭 사고 싶은 그 물건들에 대해 죽으세요.
그리고 난 뒤 하나님으로 온전히 만족하시고 천국을 느끼세요.
성령님의 도움을 통하여 천국을 느끼시고, 천국으로 배부른 상태가 된 뒤에, 내 마음에 소원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소원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소원을 따라서 내게 주어진 돈을 쓰게 되면 그거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거지요.
나는 빈들에서 오직 하늘로 만족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고, 혹시 그 여분의 것들이 주어지면, 다 빈들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쓰시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오병이어를 바친 어린아이의 심정이 되는 거지요.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 오병이어의 심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뿜어대며 사는 겁니다.
이게 빈들의 삶이에요, 빈들의 삶.
빈들에서 어린아이가 오병이어를 바쳤다, 오병이어를 바치는 단계는 어떤 단계라고요?
하나님으로 배부른 상태가 지나가야.
아마 어린아이가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좋았을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어른도 견디기 힘들었을 텐데.
예수님으로 너무 배부르고 좋아서, 그만 엄마가 싸준 한 끼 식사 분을 제자들에게 손에 넘겨주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 온~전히 배부른 빈들에 있는 자로서 내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어린아이가 제자들의 손에 넘겨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으로 넘겨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 질 것입니다.
그러나 몸과 마음이 붙어있는 구조에서 나타나는 소원을 따라 내게 주어진 것이라고 막 썼다가는 반드시 헤롯 왕가의 삶으로 진입해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헤롯 왕궁과 예수님의 빈들, 말씀을 거듭 반복하면서 내 삶의 모습을 진단하시고 복된 예수님의 빈들의 삶이 오늘도 주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의 환경이 빈들이 되게 해 주시고, 내 마음은 이 빈들에서 발견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과 행복을 오직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성령께 이끌려 감을 통해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으로 만족한 상태에서 내게 허락하시는 대로 받고, 혹시 내게 필요한 이외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뜻에 바쳐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하옵나이다.
아멘!